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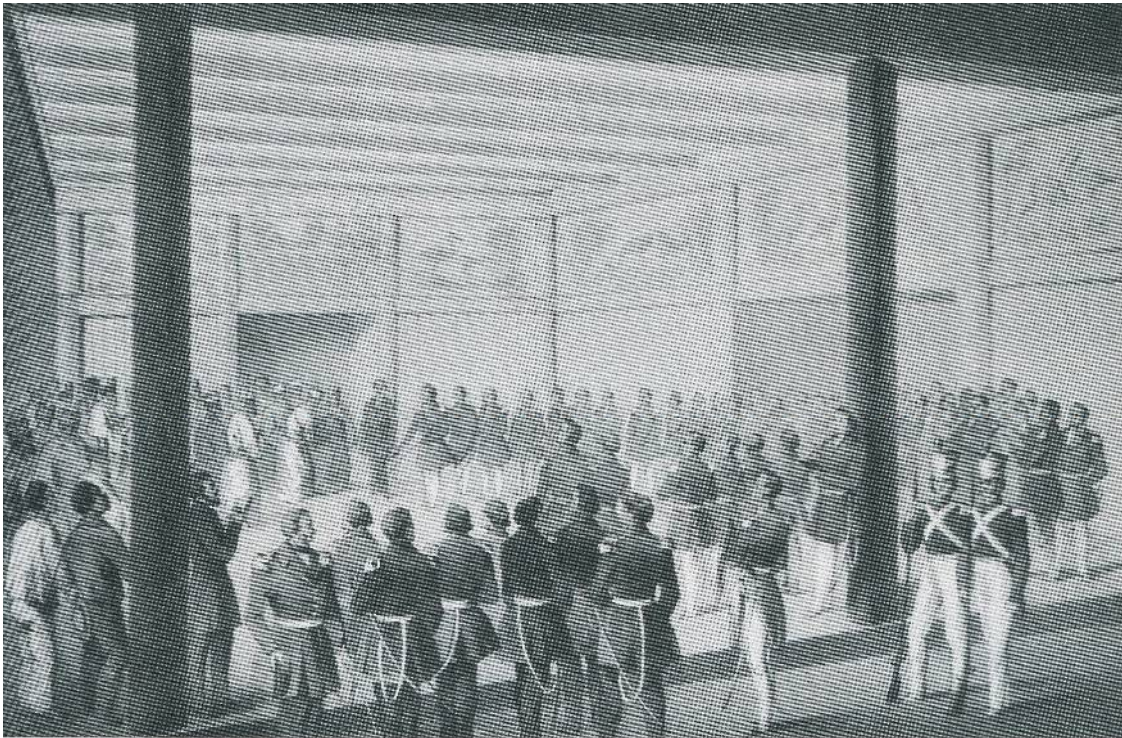
## 이국인이 본 아와모리

19세기에 들어와, 영국, 프랑스, 미국등 유럽과 미국의 함선이 유구에 내항하게 되었습니다. 그 방문기 중에, 사키(술:아와모리)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.

1816년에 유구를 방문한 영국인의 바질 홀(라이라호 함장)은 유구의 풍속이나 주민과의 교류를 소개했습니다. 유구의 왕자와의 술자리에서 사키(술)이 나왔습니다.

「왕자의 식탁에서 술 잔의 응수는 적었지만, 다른 식탁에서는, 모든 구실을 마련하여 사키(술)을 돌리고는 건배가 되풀이 됐다. 사키(술)는 그 정도로 강하지 않았지만, 매우 질이 좋아서, 강제적이지 않아도 바닥이 보이도록 술을 비웠다.」라고 기록되고, 사키(술은) 즉 아와모리의 맛이 좋았다고 평가됩니다.

그로부터 13 년후의 1827 년에는,같은 영국의 블로섬호가 내항했습니다. 사령관의 비치는,토마리촌(泊村)의 접대 테이블 음식이나 과자종류 외에, 2 종류의 화주, 즉 사키(술 아와모리)가 나란히 있었고, 하나는 중국산 술과 비슷했다고 합니다.그 연회중에서, 사



首里城における歓迎レセプション  
(ペリー『日本遠征記』より)

키(술 아와모리)가 권해져서, 비치는 그 술이 굉장히 독한 술이었기 때문에, 포도주로 바꿔 마셨다고 합니다. 【슈리성에 행해진 환영회(페리 「일본 원정기」로부터)】

게다가, 1853년에 방문한 미국인 페리 일행도, 아와모리를 접했습니다.슈리의 만찬회에서, 테이블 중앙에 사키를 병이 있었고, 그 사키는 프랑스 술의 맛이였다고 표현 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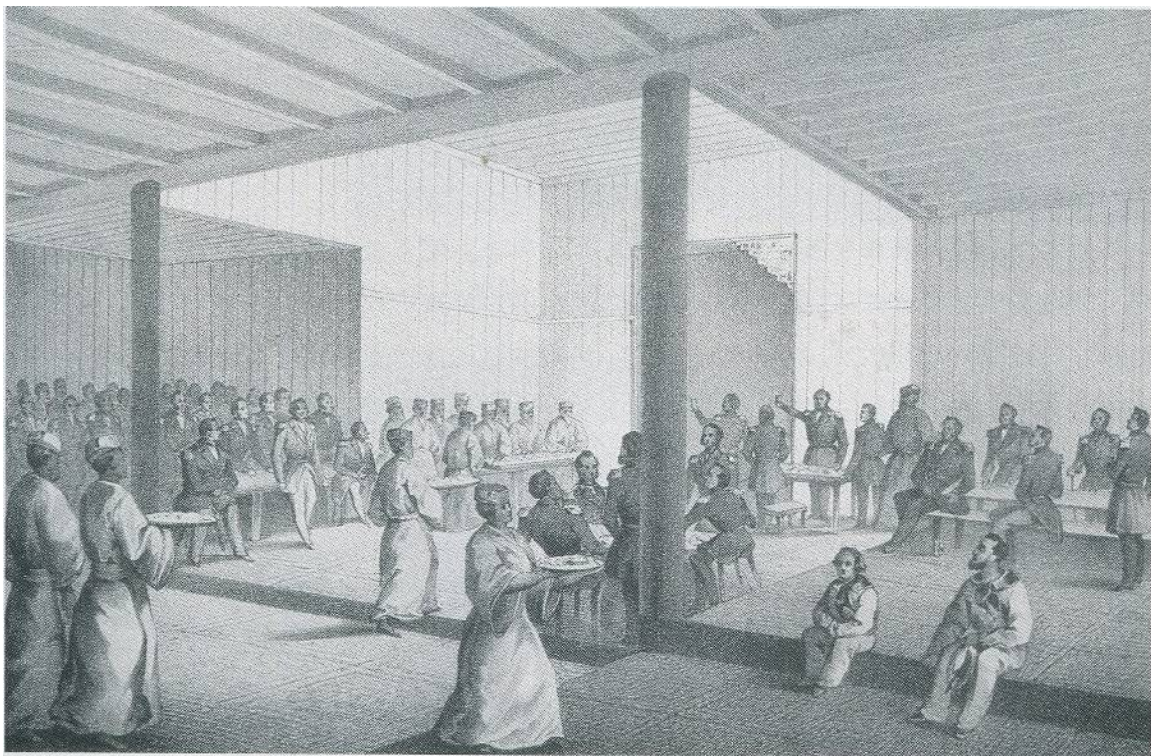
페리에 동행 한 비서관의 테일러는 더욱 자세하게 기술 했습니다.

「작은 항아리에 따라진 술이 나왔지만,이 술은 지금까지의 섬에서 맛본 것에 비해, 굉장히 향기가 좋았다. 양조 된지 오래됐고 , 맛이 부드럽고 ,칼칼하고 단맛이 있는 몇 개의 프랑스산의 리큐어술과 비슷했다.」

테일러는 술의 미각에 예민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. 아와모리는 장시간 저장된 오래된 술이었던 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유럽과 미국인이 본 아와모리에서 주목되어진 것은, 어쨌든 아와모리 술을 「사키」라고 표기 된 점입니다.당시에도, 아와모리의 일반적인 명칭은 "사키"였고 "아와모리"라고 불려진 것이 정착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또한, 페리항에서 아와모리에 대해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아와모리를 마시고 술 취한 해군 병사 윌리엄 보드가, 민가에 들어가서 한 부인을 강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그는 주민에게 쫓겨서 항구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. 그 후,사건을 알고 화난 페리와 유구측과의 사이에서, 재판이 행해지고 있습니다.보드 사건에는 아와모리가 큰 관계가 있습니다.



琉球の摂政邸におけるばんさん会  
(ペリー『日本遠征記』より)

**【유구의 섭정 저택에서 행해진 만찬회(페리 「일본 원정기」로부터)】**